

여성부 · 이케다화양회 · 영시라유리 세대의 지침

(2021.12.01 세이쿄)

여성부 · 이케다화양회의 지침 여성부 협의회에서 발표

2021년 12월 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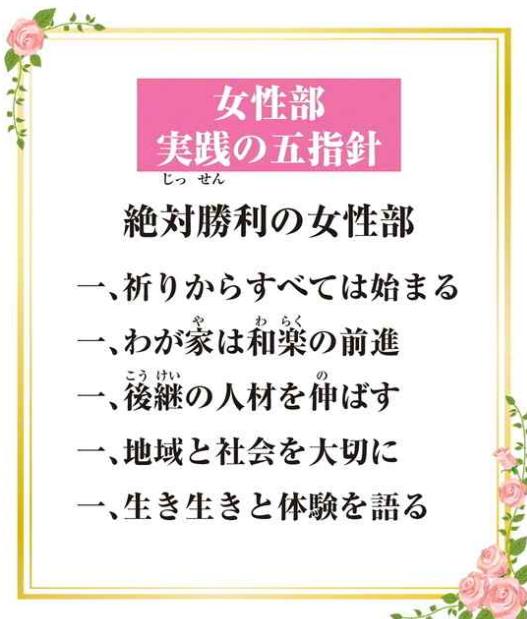
여성부(女性部)의 새로운 출발에 즈음하여 ‘부인부(婦人部) 실천 5지침’이 ‘여성부 실천 5지침’으로, ‘여자부(女子部) 영원한 5지침’이 ‘이케다화양회(池田華陽會) 영원한 5지침’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여성부의 대표 협의회가 어제난 11월 30일, 도쿄(東京) 시나노마치(信濃町)의 창가이케다화양회회관에서 실시되어 석상에서 발표되었다.

두 지침은 이케다 다이사쿠(池田大作) 선생님이 여러 차례 퇴고(推敲)를 거듭해 절대 승리(絶對勝利)에 대한 흔을 남긴 것. 그것이 전(全) 세대(世代)의 스크럼으로 사제(師弟)의 길을 한결같이 끗끗이 걷는 여성부의 ‘인생의 지침’으로 다시 태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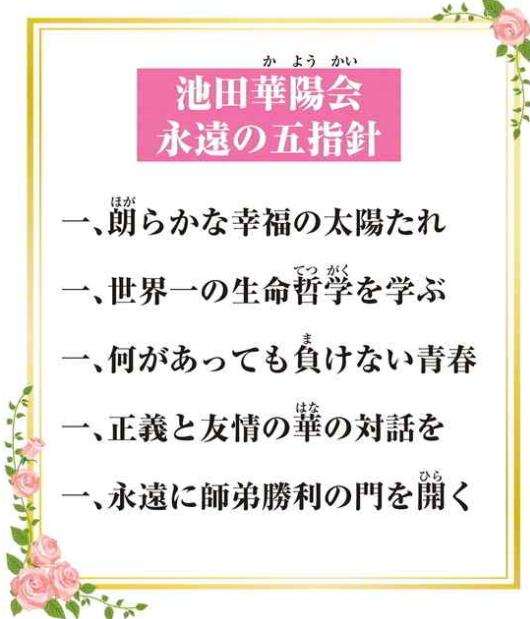
이 외, 협의회에서는 내년의 부(部)의 활동방침을 확인. 또한 내년을 여성부 비약(飛躍)의 해로 만들기 위해 희망의 진열(陣列)을 확대해 나가는 것을 함께 기약했다.

● 여성부(女性部) 실천(實踐) 5지침



「절대승리(絶對勝利)의 여성부」
하나, 기원(祈願)에서부터 모든 것은 시작된다.
하나, 우리 집은 화락(和樂)으로 전진(前進)
하나, 후계(後繼)의 인재(人材)를 키운다
하나, 지역(地域)과 사회(社會)를 소중히
하나, 생기 넘치게 체험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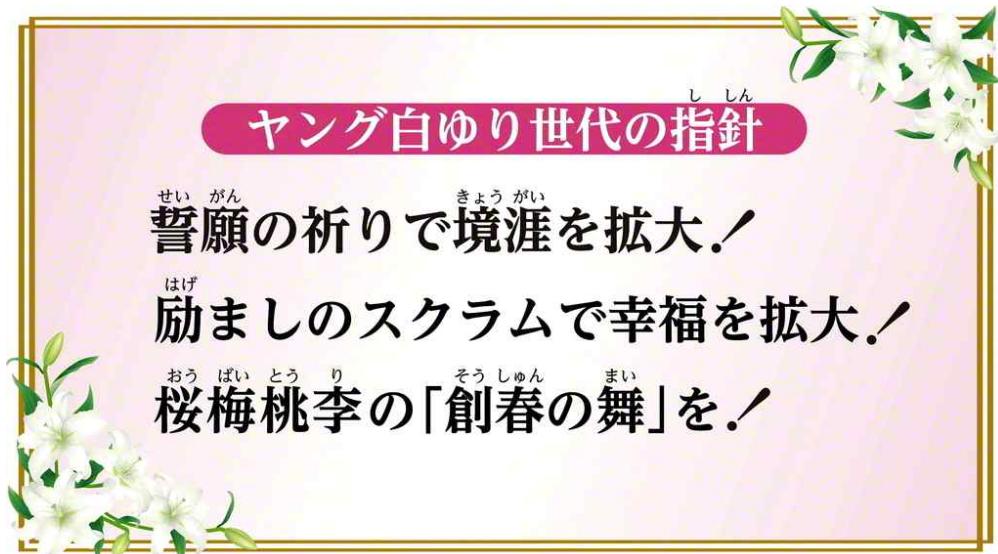
● 이케다화양회(池田華陽會) 영원한 5지침



하나, 명랑한 행복(幸福)의 태양(太陽)이어라
하나, 세계 제일의 생명철학(生命哲學)을 배운다
하나, 무슨 일이 있어도 지지 않는 청춘(青春)
하나, 정의(正義)와 우정(友情)의 꽃(華)의 대화를
하나, 영원한 사제승리(師弟勝利)의 문을 연다

여성부 · 영시라유리 세대(世代)에게 신(新)지침

2021년 12월 2일



여성부의 신(新)출발에 즈음해, 영시라유리 세대의 지침(指針) 「서원(誓願)의 기원(祈願)으로 경애(境涯)를 확대!」「격려(激勵)의 스크럼으로 행복(幸福)을 확대!」「앵매도리(櫻梅桃李)의 「창춘(創春)의 춤」을!」이 발표되었다.

차대(次代)를 짊어질 보배와 같은 존재인 영시라유리 세대의 벗에게 조직과 가정, 지

역, 사회에서 사제공전(師弟共戰)의 도전(挑戰)을 관찰하는 희망의 원천(源泉)이 될 것이다.

영시라유리 희망 칼리지 내년 3월까지 전송

또한 새롭게 영시라유리 세대가 된 동지들도 시청할 수 있도록 제1회 영시라유리 희망 칼리지가 재전송되고 제2회 방송기간도 연장된다.(함께 내년 3월 31일까지 시청가능, 한정공개)

숙명(宿命)을 사명(使命)으로 바꾼 동세대 벗의 인간혁명(人間革命)의 드라마나, 나가이시(永石) 여성부장과 누마쿠라(沼倉) 서기장의 토크 등이 수록되어 신심근본(信心根本)의 전진(前進)을 서로 맹세하는 충실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